



수직고경의 회복을 동반한 포괄적 보철수복 증례



나 종 찬*, 구 송 회, 황 정 원, 신 상 완, 서 규 원

고대 안암 병원 치과 보철과

전체 구강수복(Total mouth rehabilitation)은 다양한 원리와 테크닉이 혼합된 보철수복의 가장 어려운 분야 중 하나이다. 이러한 보철수복은 세 단계로 나눌 수 있는데 첫째는 정확한 진단을 통하여 진단과 치료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이고, 두 번째는 수립된 치료계획을 과도기적인 절차(transitional procedures)를 통하여 진행해 가는 단계이며, 마지막으로 수립된 과정을 성공적으로 완성하는 단계이다.

다수의 구치부 치아가 상실되거나 전체 치열에 심한 교모가 있어 교합 수직고경과 안모 높이의 상실이 있는 경우 환자는 부적절한 기능과 저작을 하게 되고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게되며 이갈이와 TMD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Akerly는 과도한 피개 교합을 정도에 따라 분류하고 교정 치료, 악교정술 및 완전구강수복 등의 다양한 치료방법을 제시하였다.

수직고경을 증대시킨 상태에서 수복하는 것은 이갈기, 근 피로, 치아, 근육 및 관절의 동통, 두통 그리고 치아의 함입 등을 야기할 수 있는 바, 위에서 언급한 보철 수복의 세 단계 중 두 번째 단계인 임시 보철물등을 이용한 과도기적인 절차를 통하여 최종적인 보철수복의 상태에 환자가 적응해가는 단계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이러한 임시 보철물은 적절한 안정성과 유지력을 가져야 하며 조절이 용이해야하고 이를 통하여 적절한 악간관계에서 새로운 교합 고경을 결정할 뿐 아니라 심미성을 평가하며 생리적 한도내에서 교합의 변화가 적절히 적응 되는지 확인할 수 있다.

본 증례는 23세의 남자 환자로 심한 우식증으로 다수의 치아를 상실하여 교합고경이 낮아진 상태였다. 상악은 고정성 보철물로, 하악은 어태치먼트 유지 국소의치로 수복할 것을 계획하고 보철 전 처치를 시행하였다. CR 상태로 악간관계를 채득하고 교합기상에 마운팅한 후 고경을 약 4mm 올린 상태에서 상악의 전체 치열과 하악의 지대치에 대한 임시 보철물을 제작하였다. 우선 상악의 고정성 보철물을 적절한 교합평면으로 제작하고 높아진 고경에 맞추어 하악에 장기간 사용할 임시 보철물을 제작하였다. 1개월 가량 새로운 교합관계에 환자가 적응하는지 여부를 평가한 후 최종적으로 국소의치를 이용하여 하악을 수복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치료과정을 통하여 심미적이며 기능적인 포괄적 수복이 가능하였기에 증례보고하는 바이다.